

우리들의 모습



두봉 레나도 주교
(1929 - 2025)



프란치스코 교황
(1936 - 2025)

두봉 레나도 주교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도 드립니다.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5월 12일 디오니시오
대 신 학 생 - 심민성 (모전동, 군북무)
- 5월 14일 마티아
예비신학생 - 김나경 (하망동, 중3)
- 5월 17일 파스칼
예비신학생 - 윤현성 (모전동, 중2)
- 5월 19일 테오필로
대 신 학 생 - 이민우 (봉화, 연구2)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콘클라베’(Conclave)

지난 4월 21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교황님을 뽑아야 하겠지요.

라틴어로 ‘열쇠로 잠그다’라는 뜻의 ‘콘클라베’(Conclave)라고 불리는 교황 선거는, 80세 이하의 추기경님들이 시스티나 성당에 모이고, 성당 문은 굳게 잠기며, 교황 선출이 끝날 때까지 투표를 해요. 새 교황이 선출되는 동안 교황 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들은 외부와 연락할 수 없으며, 선출이 끝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비밀로 해요.

선출 기간에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 오르는데, 만일 투표에서 새 교황을 선출하지 못하면 검은 연기, 새 교황을 선출했으면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성당 바깥에서 기다리던 군중은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 색깔을 보고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드디어 새 교황을 선출했다는 뜻이고, 곧이어 추기경님 한 분이 교황청 사무실 발코니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이라고 외치지요. 이는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어서 선출된 새 교황은 발코니에서 군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이를 위해 첫 강복을 빌어줍니다. 그제야 ‘콘클라베’가 끝이 나고, 굳게 잠겼던 성당 문이 다시 열리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늘나라에 드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또 새로운 교황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드리기로 해요~!

기억해요!

1.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

- 일 시 : 5월 11일(주일) 08:30 - 18:00
- 장 소 : 원주교구 배론성지
- 대 상 : 예비신학생과 부모님



2025년 5월

예비신학생 편지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요한 15,1)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 두봉(杜峰) 주교님의 말씀 -

초대 안동교구장을 지낸 두봉 주교님이 지난 4월 10일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20대 젊은 시절,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에 대한 애정 하나로 사셨습니다. 다음은 2년 전 가톨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당신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제로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럽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사제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보자'고 말하곤 했지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조금 더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까지 나의 삶을 높이고, 개선하고, 주님과 더욱 일치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모든 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두봉 주교님은 평소 '행복'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남겼는데, 그분에게 행복이란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항상 실천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남들에게 도움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긍정을 선택하고 실천하면 행복 해집니다."

주교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모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는 항상 빛나는 존재입니다. 항상 떳떳하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신생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개강 미사 때 같이 심은 방울토마토를 잘 키우고 있는지요? 저도 친구들과 나눠 먹거나 가족들과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의 작은 행동들이 자연도 살리고 우리도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 준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연은 나의 작은 실수나 습관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경험했지요. 이 산불은 처음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건잡을 수 없게 되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피해를 끼쳤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불씨가 많은 이들의 쉼터와 가족을 잃게 만들고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앞선 두 사례를 보았을 때, 결국 자연을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연과 동식물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 1,28 참조) 이 말은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가끔 우리는 오직 인간만을 위해 자연을 사용하고 파괴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이웃입니다. 자연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나의 이웃이라 생각하고 아끼고 보존하며, 나의 작은 행동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작은 행동부터 자연보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예신생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담 본당, 실습의 해
김기섭 요셉 신학생



페르디난도
난 도 리